

1위  
ABC 공인 유류 발행부수  
3년 연속 1위

# 스포츠동아

2021년 4월 7일 수요일  
www.sportsdonga.com



우리카드 알렉스(위)가 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 1차전 도중 OK금융그룹의 블로킹 벽 사이로 스파이크를 시도하고 있다. 알렉스는 양 팀 통틀어 가장 많은 30득점으로 팀 승리에 앞장섰다. 정충 | 김중현 기자 won@donga.com

## 알렉스 30득점...우리카드 "1승만 더"

PO 1차전 OK금융그룹에 3-1 기선제압  
나경복은 18득점 올리며 '트리플크라운'



외국인선수의 경기력 차이가 승패를 갈랐다.

우리카드는 6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플레이오프(PO·3전2승제) 1차전 홈경기에서 OK금융그룹을 세트스코어 3-1(25-21 25-18 23-25 25-22)로 꺾고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우리카드는 남은 2경기에서 1승만 보태면 창단 후 처음으로 챔피언결정전에 오른다. 우리카드의 역대 최고 성적은 2018~2019시즌의 PO 진출이다.

우리카드 알렉스 페레이라는 30점(1블로킹·2서브)을 올렸고, 나경복은 6블로킹·3서브·3후위공격을 포함해 18점을 올리며 트리플크라운을 작성했다. 한성정도 10점(3블로킹)을 거들었다. OK금융그룹 에이스 펠리페는 2세트 중반부터 교체로만 코트를 밟는 등 10점(1서브)에 그치며 아쉬움을 남겼다. 조재성(18점·공격성공률 70.83%)의 활약도 빛이 바랬다.

평일 낮경기임에도 수용 가능한 좌석(246석)을 모두 채운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은 우리카드 선수들은 1세트부터 힘을 냈다. 공수의 밸런스가 뛰어난 장점을 한껏 뽐냈다. 알렉스(9점)와 나경복(7점)의 파괴력을 앞세워 격차를 벌였고, 끈끈한 수비로 OK금융그룹의 1세트 공격 성공률을 40%까지 떨어트렸다.

2세트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필요할 때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기세를 올렸다. 10-7로 앞선 상황에서 OK금융그룹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펠리페를 빼는 초강수를 뒀지만, 우리카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18-15에서 한성정의 블로킹과 오픈, 알렉스의 서브득점으로 21-15까지 달아나자 OK금융그룹은 추격의 동력을 상실했다.

리시브 불안으로 3세트를 내주며 위기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우리카드는 급세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 중심에는 알렉스가 있었다. 4세트 14-14에서 연속 공격득점으로 흐름을 가져왔고, 17-15에서 서브득점을 폭발하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이후 끝까지 리드를 지킨 우리카드는 24-22에서 상대 서브범실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양 팀의 2차전은 7일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다.

정충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 “용진이형” 스킨십, 선수들 성장 동력

추신수도 반긴 SSG 정용진 구단주 파격 행보



SSG 정용진 구단주가 4일 인천 롯데전을 VIP석이 아닌 테이블석에서 지켜보고 있다. 정 구단주는 활발한 SNS 소통을 통해 구단의 마케팅을 직접 이끄는가 하면 선수들과도 격의 없이 접촉하며 KBO리그에 새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SNS선 상대 도발, 전면에서 구단 홍보  
정익운·박종훈과 벌써 SNS 친구 먹어  
테이블석 관람 후 개막전 승리 축하도  
“텍사스 구단주는 매일 경기장에 출근  
구단주의 관심, 선수단 집중력 높일 것”



“텍사스 구단주님은 매일 오셨어요.” SSG 랜더스가 화제를 불러 모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세계그룹 부회장인 정용진 구단주의 존재다. 정 구단주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통 라이벌인 롯데 자이언츠를 도발하고, 구단의 플랜과 유니폼의 실루엣까지 먼저 공개하는 등의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구단주가 전면에 나서 구단을 홍보하는 것이다.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큰 경기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구단주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임이 분명하다.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구단주는 선수와 코치진 등

현장 스태프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단장과 대표이사처럼 전면에 등장하고 직접 소통할 일이 많지 않아서다. 그러나 정 구단주는 그를 과감히 깨트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SNS를 통한 소통도 그 중 하나다. ‘텍진이 형으로 불리는 NC 다이노스 김택진 구단주처럼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는 이미 성공했다’는 평가다. SSG의 주축선수들인 정익운, 박종훈 등은 이미 정 구단주와 SNS 친구가 됐다.

창단 첫 경기였던 4일 롯데와 홈경기 때는 구장을 직접 찾아 VIP석이 아닌 테이블석에서 편안한 뒤 “창단 첫 승과 김원형 감독의 첫 승을 축하한다. 오늘 정말 멋진 경기였다. 선수들에게도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남겼다. 또 8회말 최주환의 홈런이 터졌을 때는 크게 기뻐하며 기립박수를 쳤고, 경기 후 최우수선수(MVP)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딴 ‘용진이형상’까지 수여했다.

구단주의 이런 적극적 움직임을 바라보는 ‘추추 트레인’ 추신수(39)의 생각은 어떨까. 그는 지난해까지 시애틀 매리너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신시내티 레즈, 텍사스 레인저스를 거치며 메이저리그 통산

1652경기에 출전했던 베테랑이다. 그는 “텍사스는 구단주가 매일 경기장에 온다. 지성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만큼 익숙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구단주가 매일 오니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은 부담을 많이 가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구단 소유자의 입김이 강하다 보니 아무래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였다.

확실한 사실은 추신수도 정 구단주의 행보를 반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구단주님께서 그만큼 야구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좋은 일이고, 선수단 전체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며 “선수들도 한 경기, 한 타석을 소홀히 할 수 없다.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구단주의 눈에 들기 위해서라도 열정적으로 뛰다 보면 그만큼 기량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으로 들었다. 실제로 1군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던 선수들에게는 구단주의 관심이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추신수는 정 구단주의 관심이 선수들에게 부담이 아닌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길 바라고 있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면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CJ CHEILJEDANG

남자의 건강기능식품

# CJ 전립소

전립선 건강은 물론, 정상적인 면역기능,  
항산화, 에너지 활력까지! 100% 미국산 소팔메토

- 기능성 원료인 소팔메토의 인체시험 결과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증가, 야뇨/소변속도 개선, 남성 삶의 질 개선 확인
- 국내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기능성 인정
- 미국 FDA 안전성 기준 충족 프리미엄 원료 사용



※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기준

소팔메토 열매추출물, 비타민 B군 4종, 셀레늄, 아연  
건강기능식품 30g(500mg X 60캡슐)

Returnup

1회분량 당 함유량: 열매추출물 0.60%, 셀레늄 0.050%, 아연 0.500%, 비타민 B1 1.000%, B2 1.000%, B6 1.000%, B12 1.000%, 나이아신 1.000%, 판토텐산 1.000%, 인오시톨 1.000%, 크롬 1.000%, 구아라나 추출물 1.000%, 카키오시드 1.000%

1회분량 당 함유량: 열매추출물 0.60%, 셀레늄 0.050%, 아연 0.500%, 비타민 B1 1.000%, B2 1.000%, B6 1.000%, B12 1.000%, 나이아신 1.000%, 판토텐산 1.000%, 인오시톨 1.000%, 크롬 1.000%, 구아라나 추출물 1.000%, 카키오시드 1.000%

1회분량 당 함유량: 열매추출물 0.60%, 셀레늄 0.050%, 아연 0.500%, 비타민 B1 1.000%, B2 1.000%, B6 1.000%, B12 1.000%, 나이아신 1.000%, 판토텐산 1.000%, 인오시톨 1.000%, 크롬 1.000%, 구아라나 추출물 1.000%, 카키오시드 1.000%



CJ 전립소  
소팔메토 파워

벤케어파워 옥타코사놀 3개월분 증정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80-722-9988